

중고령자의 은퇴 만족 유형과 삶의 만족도 : 성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조규영¹, 전해정^{2*}, 이은지²

¹동아대학교 기초교양대학, ²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Types of Retirement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among Middle and Older Adults: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s

Kyuyoung Cho¹, Hey Jung Jun^{2*}, Eun Jee Lee²

¹College of General Education, Dong-A University

²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은퇴를 주로 부정적인 생애사건으로 분류하였던 기존 인식에서 벗어나 보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다루고자 하였다. 취업자를 참조집단으로 하여, 은퇴자의 은퇴 만족 여부(만족 은퇴, 불만족 은퇴)가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였다. 연구대상은 1~2차년도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참여자 중 45세 이상의 취업자 1,886명, 은퇴자 723명으로 총 2,609명이며, 은퇴자는 1~2차년도 지속적 불만족 은퇴자와 만족 은퇴자로 구분하였다. 연구방법은 SPSS 21.0을 사용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남녀 집단 간 차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위해 성별에 따른 회귀계수의 차이를 Mplus 7.3을 사용하여 다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을 통해 검증한 뒤, Wald-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불만족 은퇴자와 만족 은퇴자의 삶의 만족도는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은퇴에 불만족할 경우 취업자보다 삶의 만족도는 낮은 반면, 은퇴에 만족할 경우 오히려 취업자보다도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남녀 모두 불만족 은퇴자는 취업자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았고, 이 효과는 여성에게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만족 은퇴자의 삶의 만족도는 취업자보다 높은 반면, 남성의 경우 이러한 영향력이 유의미하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은퇴자 집단의 이질성 및 생애과정에서의 성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how retirement satisfaction or dissatisfaction influences on retirees' life satisfaction, comparing to workers and the gender differences were examined. The study sample was 2,609 persons (1,886 workers, 723 retirees) aged 45 or older who participated in the 1-2 waves of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and the retirees were classified into continuously dissatisfied retirees and satisfied retirees during wave 1 and 2. Using SPSS 21.0, the multiple regression models were examined, and in order to clarify the gender difference, the multi-group analysis and the wald-test were conducted to test the difference of the regression coefficients according to gender using Mplus 7.3.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life satisfaction of dissatisfied retirees was lower than that of the employed, but when satisfied with retirement, the life satisfaction was higher than that of the employed. In addition, the dissatisfied retirees in both gender were less satisfied with life than the employed, and this effect was greater in female group. However, the life satisfaction of female satisfied with retirement was higher than that of the employed, whereas the evidence of the male influence was not found to be significan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discussion about heterogeneity of retirees and gender differences in life span were presented.

Keywords : Dissatisfying Retirement, Satisfying Retirement, Gender Difference, Life Satisfaction, KLoSA

본 논문은 2016년 한국가족관계학회 공동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전문 포스터를 수정 및 보완함
본 논문은 동아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Hey-Jung Jun(Yonsei Univ.)

Tel: +82-2-2123-3154 email: hjjun@yonsei.ac.kr

Received February 1, 2019

Revised March 4, 2019

Accepted April 5, 2019

Published April 30, 2019

1. 서론

은퇴가 개인의 삶에 위기 혹은 기회인지는 지속적으로 논의됐지만, 기본적으로 은퇴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새로운 생애 단계의 시작이다. 은퇴 연구는 수십 년 동안 축적됐으며, 주로 은퇴는 개인의 적응에 도전을 가져오는 위기사건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최근들어 은퇴로 인한 장점이나 은퇴를 삶의 과정으로써 인식하는 등[1,2], 은퇴의 이질성을 보여주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다. 이렇듯 은퇴가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를 고양 혹은 저해시키는가에 대한 연구결과가 혼재함에 따라, 은퇴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일방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주로 부정적 영향을 보고하지만[3-6], 긍정적 영향에 관한 연구도 다수이며[1,7-10], 두 가지 영향력이 모두 나타나거나[11], 관련성이 보고되지 않기도 한다[12].

은퇴와 관련되어 가장 자주 사용되는 이론은 역할이론(Role Theory)과 지속이론(Continuity Theory)으로 두 이론은 상반된 관점에서 은퇴자의 정신건강을 설명한다. 역할이론에서 은퇴는 노동자라는 역할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일에서 은퇴로의 전이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13]. 즉, 은퇴로 인하여 노동자 역할, 조직 구성원 역할, 경력자 역할 상실이라는 측면에서 정신건강이 저해된다고 보았다. 반면, 지속이론에서는 은퇴가 역할 상실이라기보다는, 사회적 관계와 삶의 방식의 패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기회라고 본다[14]. 즉, 은퇴 후에도 전과 마찬가지로 정체성과 자아개념에 대해서 지속성을 가진다면, 은퇴한다고 하더라도 정신건강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Drentea[11]는 일과 은퇴를 상반되는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는데, 은퇴가 개인을 해방시킨다는 관점에 따르면, 은퇴자는 불안과 디스트레스를 덜 경험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한다. 그러나 은퇴가 개인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관점은 은퇴자의 낮은 통제감과 관련된다.

한편, 은퇴를 다룬 연구들은 은퇴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은퇴자와 비은퇴자의 비교, 은퇴 전후를 비교하는 연구 등 다각도에서 이루어졌다. 은퇴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9,15-18]은 은퇴자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을 찾는 것에 집중하였다. 반면, 은퇴자와 비은퇴자(취업자)와의 비교[3,5,6,12,19,20] 혹은

은퇴 전후의 변화[4,8,21-23]를 알아본 연구들에서는 은퇴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중 은퇴 사건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안지선[3]은 은퇴자로 전이한 경우와 취업자를 비교하였는데, 중년기의 은퇴 전이는 남성의 경우에만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은퇴는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뿐만 아니라, 건강상태, 자녀 및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등 여러 삶의 영역별 만족도를 감소시킨다[4]. 그러나 상반되게 은퇴의 긍정적 영향을 지지하는 연구들 역시 보고된다. 은퇴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이 없거나, 긍정적인 자아복합성이 높은 경우[7], 삶에 대한 안정감과 통제감을 가진 경우[1] 은퇴자의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퇴란 예측가능한 생애단계이며, 일을 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가 경험하는 보편화된 현상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1].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상반된 결과는 은퇴자 집단의 이질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은퇴의 부정적 영향만큼이나 긍정적인 영향도 동시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여러 유형의 은퇴집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은퇴자의 삶의 만족도 변화 궤적을 살펴보는 연구[21,24]는 은퇴에 따른 삶의 만족도 변화 양상이 다양함을 보고하며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 하였다. 강은나[21]는 은퇴와 상관없이 생활만족도가 계속 높은 경우(고수준 유지형)와 은퇴 후 생활만족도가 낮아지는 경우(고수준 감소형, 저수준 감소형)가 존재하는 등 연구 대상이 여러 궤적을 보임을 보고하였으며, Pinquart와 Schindler[24] 또한 은퇴 전이를 경험한 은퇴자의 생활만족도 변화 양상이 다양하며, 이러한 양상은 은퇴 연령,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혼인 상태, 건강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은퇴 1년 후 은퇴자들은 심리적 건강, 활동 수준, 경제적 만족도, 대인관계만족도, 내적 통제성이 증가한다[8]. 이는 은퇴자가 은퇴 이후 일에서의 부담감에서 해방된다는 점에서 은퇴가 스트레스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또한, 연소 은퇴자들은 지각된 건강수준이 높고, 높은 수준의 은퇴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를 보인다. 취업자, 미취업자, 은퇴자의 삶의 만족도와 정서적 웰빙을 알아본 연구에서 초기 은퇴자와 후기 취업자는 높은 감정적 웰빙을 보였다[10]. 한편, 은퇴자가 비은퇴자 보다 심리적 안녕감이 낮았으나, 다른 변수를 통제 한 후에는 은퇴자와 비은퇴자의 심리적 안녕에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12]. 은퇴자는 사회활동과 취미생활을 충분히 할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고, 비은퇴자는 학습욕구의 충족이 중요하였다. 또한, 신체 건강 측면에서 근무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의 경우 은퇴가 오히려 보호요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도 존재한다[25]. 은퇴자가 취업자보다 자아존중감이 높고 우울수준이 낮다는 보고도 있다[26]. 이러한 연구들은 은퇴 자체가 노인의 심리적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해석된다.

한편, 선행연구는 은퇴자를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기 위해 은퇴 만족도를 사용하기도 하여 두 변수의 구분이 모호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건강상태, 경제상태, 가족관계 등 인간을 둘러싼 여러가지 환경을 전반적으로 포괄하며, 다수의 연구에서 은퇴자의 삶의 만족도를 연구할 때 사용되었다[1,21,24]. 그러나 은퇴 만족도는 전반적인 삶이나 생활에 대한 만족도보다는 협소한 의미로 은퇴 생활에 대한 만족을 의미하는 구체적인 개념으로 분류된다[23]. 은퇴자의 은퇴 만족도에 대해 살펴본 연구에서는 주로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은퇴 만족과 불만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사용한 연구들에서는 은퇴자의 과반수 이상이 은퇴에 만족하였으나, 불만족도 다수였다고 보고하였다[17,23,27,28]. 한편, 신현구[17]는 은퇴자의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건강상태라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은퇴 만족도가 언급되었다. 즉, 은퇴자일 경우라도 은퇴 만족도는 삶의 만족도의 일부분만을 설명하고 있어 이 두 변수의 구분이 필요하다.

은퇴 만족도를 살펴본 연구들에 따르면, 은퇴자들은 은퇴에 만족하고 있는 경우와 불만족하는 경우가 비슷했고[16,17,23,27,28], 은퇴와 관계없이 은퇴 전후 삶의 만족도가 비슷한 수준도 절반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21,22]. 그렇다면 은퇴자 집단은 은퇴 불만족과 만족에 따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 다를 수 있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은퇴 만족도의 결정요인으로는 비자발적 은퇴, 낮은 건강수준, 적은 부동산 보유 등으로, 이러한 요인들은 은퇴 만족도를 낮춘다고 보고되며[29], 공적이전소득, 자산소득, 부동산 자산과 같은 재무적 요인 및 여가활동 만족도, 경제상태 만족도, 건강상태 만족도, 친구관계 및 가족관계 만족도와 같은 비재무적 요인도 은퇴생활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30].

은퇴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

내연구는 유일하게 신현구[17]의 연구가 존재하는데, 은퇴자들은 은퇴에 만족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하지만 대상에 취업자가 포함되지 않아, 은퇴 만족이 취업과 비교하여 가지는 효과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국외 연구 중에도 은퇴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드물지만, 은퇴자를 자발성에 따라 나누어 취업자와 삶의 만족도를 비교한 연구[31]가 존재한다. 연구결과, 삶의 만족도는 자발적 은퇴자, 취업자, 비자발적 은퇴자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퇴의 자발성에 따라 은퇴 만족도가 달라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취업자와의 비교는 다루어졌지만 직접 은퇴 만족도가 변수로 포함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은퇴 만족이 취업과 비교하여 삶의 만족도에 가지는 효과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이러한 연구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은퇴자 집단을 은퇴 만족도에 따라 구분하고 취업자와의 비교를 통해 은퇴가 가지는 영향력을 보다 정확히 감지해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은퇴가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선행연구들의 엇갈리는 결과를 은퇴 불만족과 만족으로 설명해보고자 한다.

생애과정관점에서는 상호의존적 생애 영역(Interdependent Life Spheres)에 따라 개인의 삶의 영역은 다른 영역에 영향을 주고받는다[32]. 이는 은퇴자의 은퇴 적응이 일생동안 직업 세계를 제외한 영역에 얼마나 관심을 가져왔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것은 은퇴 이후에 대안적인 정체성을 제공하고, 은퇴자가 의미있는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남성의 삶의 영역은 직업 중심이고, 여성은 직업과 가족을 함께 고려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은 은퇴로 인하여 받는 영향이 분명히 다를 것이다[33].

선행연구는 성별에 따른 구분을 하지 않거나, 일과 은퇴는 주로 남성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은퇴자는 곧 남성 은퇴자로 통용되어오는 경향이 있었다[7,34]. 그러나 남성과 여성은 일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규범이 다른 상태에서 직업생활에 참여한다. 또한, 노동영역에서 직업경험, 소득, 교육 등에서의 차이[35]와 근로환경, 고용안정성, 임금의 차이[1]로 인하여 다른 경험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성은 은퇴 전의 삶을 주로 직업생활 위주로 구성해온 반면, 여성은 취업자라고 하더라도 가족생활과 직업생활의 균형을 맞춰왔기 때문에 은퇴로 인한

역할 상실이 남성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23,35]. 이러한 이유로 성별에 따른 은퇴경험은 다르며, 남성은 여성보다 이를 어렵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6,27,33].

은퇴 사건의 성차를 본 선행연구들에서는 은퇴 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삶의 만족도 다중 체계와 관련있는 요인 중 하나로 성별을 보고하였으며[24], 은퇴가 중고령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남성에게서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반면[3,5], 여성이 남성보다 더 은퇴에 만족한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27]. 또, 은퇴 후 정신건강을 높이는 요인에서도 성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9,36], 일례로 은퇴 후 심리적 웰빙에 영향을 주는 은퇴 전 자원으로 남성은 자산이나 직업만족도가 보고되었으나, 여성은 사회적 관계가 중요한 자원인 것으로 나타났다[36]. 또한, 여성은 남성보다 은퇴 과정 중 생애사건을 많이 경험하게 되고 이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으며 [37], 은퇴 전 은퇴 준비에서도 남성보다 여성이 건강, 여가, 사회적 측면에서 더 많은 준비를 하는 등 [38] 은퇴 전후 전반적인 경험에서의 성차가 다수의 연구에서 보고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성별에 따라 직업생활, 또는 가족생활 등의 상황적 맥락과 문화적 맥락이 달라지며 이러한 맥락이 은퇴경험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 만족스러운 은퇴와 불만족스러운 은퇴의 의미와 과정이 다를 수 있으며, 이것이 취업상태와 비교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도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은퇴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양한 인구학적 배경 중 성차를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의하여 본 연구는 1차(2006년) 및 2차년도(2008년)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를 사용하여, 은퇴자의 1~2차년도 은퇴 만족도에 따라 각각 ‘은퇴 불만족’과 ‘은퇴 만족’으로 나누고, ‘취업’ 상태를 참조집단으로 하여 은퇴 만족 및 불만족 여부가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회귀분석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사회인구학적 배경(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지위, 가구 총소득, 주관적 건강상태, ADL 여부)이 통제변수로 사용되었으며, 은퇴와 취업의 변동성이 큰 중노년기의 노동참여의 특성으로 인하여, 1~2차년도 동안 지속적으로 은퇴한 경우(은퇴 불만족/만족 또한 지속적으로 유지된 경우)와 지속적으로 취업한 경우로 대상을 제한하여 분석의 정교화를 꾀하였다. 즉,

‘지속적 취업상태’를 참조집단으로 하여, ‘지속적 은퇴 불만족’과 ‘지속적 은퇴 만족’이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이를 성별에 따라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취업자와 비교하여) 은퇴 만족/불만족은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취업자와 비교하여) 은퇴 만족/불만족이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1~2차년도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에 응답한 45세 이상 취업자 1,886명과 은퇴자 723명, 총 2,60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취업자를 참조집단으로 하였으며, 전체 은퇴자를 만족 은퇴자와 불만족 은퇴자 집단으로 나누었다. 본 연구에서 취업자는 “현재 일하고 계십니까?”라는 문항에서 ‘예’라고 응답한 사람 중 “가장 주된 일자리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라는 문항에 ‘타인 또는 회사에 고용되어 임금을 받고 일한다’, ‘내 사업을 한다’, 또는 ‘주당 18시간 이상 무급으로 가족, 친척 일을 돕는다’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은퇴자의 경우에는 ‘과거에 일하였으나, 지금은 은퇴하였다’에 응답한 사람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때 ‘과거에 일하였고, 앞으로도 일할 의사가 있으나, 당장은 일자리를 구하고 있지 않다’와 ‘뚜렷한 직업을 가진 적이 없다’의 경우는 은퇴자와 취업자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은퇴 연령이 45세 미만인 경우에도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취업자와 은퇴자는 1~2차년도 내내 같은 지위를 유지한 사람으로서 취업 상태나 은퇴 상태가 지속된 사람만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2.2 측정변수

2.2.1 종속변수: 삶의 만족도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 2차년도에 측정된 삶의 만족도가 사용되었다. 삶의 만족도는 “동년배의 다른 분들과 비교했을 때 응답자님의 전반적인 삶의 질(행복감)에 대

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라는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응답자는 문항에 대해 0~100점 범위에서 만족하는 정도를 10점 단위로 응답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2.2.2 예측변수: 은퇴 만족도

연구대상의 은퇴자 중 ‘은퇴한 것에 대하여 현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문항에서 1~2차년도 내내 ‘매우 만족한다’ 또는 ‘만족하는 편이다’에 응답한 사람을 은퇴 만족자로, 그리고 1~2차년도 내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에 응답한 사람을 은퇴 불만족자로 분류하였다. 이후 취업자를 참조집단으로 하여 은퇴 만족자와 은퇴 불만족자에 대한 더미변수를 생성하였다.

2.2.3 통제변수

통제변수로는 성별, 1차년도에 측정한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와 1~2차년도 평균 가구소득,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주관적 건강상태, 그리고 종속변수의 사전점수인 1차년도 삶의 만족도가 포함되었다. 먼저 연령은 측정년도(2006년)와 출생연도의 차이를 구해 만나이로 계산하였다. 교육수준은 1차년도 기준 최종학력으로, ‘1=초등학교 졸업이하’, ‘2=중학교 졸업’, ‘3=고등학교 졸업’, ‘4=대학교 졸업이상’으로 코딩하였다. 배우자 여부는 1차년도에 응답한 혼인상태를 바탕으로 ‘0=무배우자’, ‘1=유배우자’로 코딩하였다. 가구소득과 ADL, 그리고 주관적 건강상태는 시간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여 1차년도와 2차년도 측정값을 평균 내어 분석에 포함하였

다. 먼저 가구소득은 측정년도를 기준으로 직전 한 해 가구원의 총소득을 만원 단위로 측정하였다. ADL은 일상생활 수행능력 중 도움이 필요한 영역의 수를 연속변수로 코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1=매우 좋음’에서 ‘5=매우 나쁨’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된 것을 역코딩하여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본인의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는 은퇴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SPSS 21.0을 사용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를 대상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같은 모형을 성별로 나누어 각각 분석하였다. 이때, 성별에 따른 회귀계수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Mplus 7.3을 사용하여 다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진행하였다.

3. 결과 및 해석

3.1 연구대상의 일반적 경향

본 연구대상의 일반적 경향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전체 2,609명 중 취업자가 1,886명이고, 은퇴 만족자는 463명, 은퇴 불만족자는 260명이었다. 모든 집단에서 남성이 과반수 이상으로 여성보다 많았고, 대다수가 배우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ample

		Measure: Frequency(%)			
Variable		Total	Employed	Satisfied Retiree	Dissatisfied Retiree
Sample Size		2,609(100.0)	1,886(72.3)	463(17.7)	260(10.0)
Gender	Male	1,756(67.3)	1,257(66.6)	33.4(72.1)	165(63.5)
	Female	853(32.7)	629(33.4)	129(27.9)	95(36.5)
Age	M(SD)	58.92(10.28)	55.00(7.99)	69.82(8.45)	67.94(8.11)
Education	M(SD)	2.35(1.10)	2.45(1.06)	2.27(1.19)	1.72(0.99)
Marital Status	Unmarried	344(13.2)	188(10.0)	91(19.7)	65(25.0)
	Married	2,265(86.8)	1,698(90.0)	372(80.3)	195(75.0)
Income	M(SD)	2,694.55 (2,440.88)	3,092.71 (2,385.13)	1,946.15 (2,373.28)	1,083.26 (1,948.51)
Subjective Health	M(SD)	3.26(0.84)	3.48(0.70)	3.05(0.79)	2.08(0.81)
ADL	M(SD)	0.10(0.67)	0.01(0.14)	0.13(0.67)	0.71(1.75)
Life Satisfaction _{t-1}	M(SD)	65.13(20.03)	66.72(18.28)	70.00(17.46)	44.92(24.39)
Life Satisfaction _{t-2}	M(SD)	63.52(18.66)	65.23(17.18)	66.93(16.71)	45.08(21.82)

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연령은 취업자가 55세였는데, 은퇴자는 은퇴 만족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자보다 평균연령이 10세 이상 높아 은퇴 만족자의 평균연령은 약 70세였으며, 은퇴 불만족자의 평균연령은 약 68세였다. 교육수준은 취업자와 은퇴 만족자의 경우 평균적으로 중학교 졸업 이상이었는데 은퇴 불만족자의 경우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은퇴 불만족자의 교육수준이 가장 낮았다. 가구소득은 취업자의 경우 평균 3천만 원이 넘는 반면, 은퇴 만족자는 2천만 원에 가까웠으며 은퇴 불만족자는 천만 원 수준이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취업자, 은퇴 만족자, 은퇴 불만족자 순으로 높았으며, 일상생활수행에 도움이 필요한 영역의 수는 은퇴 불만족자, 은퇴 만족자, 취업자 순으로 은퇴 불만족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가장 낮았다. 삶의 만족도의 경우는 1차와 2차년도 모두 은퇴 만족자가 가장 높았으며 은퇴 불만족자가 가장 낮았다.

3.2 은퇴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1~2차년도 지속적 은퇴 만족도가 2차년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구체적인 변수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회귀모형의 유의도를 확인한 결과, 본 연구의 회귀모형은 유의하여($F = 128.03, p < .001$)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기에 적합하였다. 주요 변수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본 분석은 독립변수인 은퇴 만족도의 더미변수가 모두 유의하며, 구체적으로 은퇴 불만족($b = -5.63, p < .001$)과 은퇴 만족($b = 2.53, p < .05$) 더미변수가

Table 2.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for All (N=2,594)

	b	β
(Constant)	18.07***	
Gender	1.25	0.03
Age	0.09 [†]	0.05
Education	0.75 [†]	0.04
Marital Status	4.56***	0.08
Income	0.001***	0.11
Subjective Health	3.17***	0.14
ADL	-1.68***	-0.06
Life Satisfaction _{t-1}	0.33***	0.36
Retirement Satisfaction ¹⁾		
Dissatisfied	-5.63***	-0.09
Satisfied	2.53 [†]	0.05
<i>F</i>	128.03***	
<i>adjusted R</i> ²	0.33	

¹⁾reference: employed

[†] $p < .05$, *** $p < .001$

모두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은퇴에 불만족하는 사람은 취업자 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았으나, 은퇴에 만족하는 사람은 취업자 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통제변수들과 독립변수들의 총 설명량은 33%이다($R^2 = .33$).

3.3 은퇴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

1~2차년도 지속적 은퇴 만족도가 2차년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성차를 알아보기 위해 성별에 따른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남성($F = 81.85, p < .001$)과 여성($F = 60.80, p < .001$) 각각을 대상으로 한 회귀모형은 모두 유의하여 종속변수인 2차년도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기에 적합하였다. 성별에 따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은퇴 만족도 더미변수 중 은퇴 불만족의 영향력은 남성($b = -4.90, p < .01$)과 여성($b = -6.89, p < .01$) 모두에게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은퇴 만족($b = 5.54, p < .01$)의 효과는 여성에게서만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차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더미변수들로 구성된 은퇴 만족도 변수군 전체에 대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wald-test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chi^2 = 7.74, p < .05$). 이는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은퇴 만족도의 남성과

Table 3.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for Males and Females (N=2,594)

	Male (n=1,744)		Female (n=850)	
	b	β	b	β
(Constant)	14.34**		26.00***	
Age	0.14**	0.08	-0.02	-0.01
Education	1.11***	0.07	-0.02	-0.001
Marital Status	6.74***	0.09	2.66*	0.06
Income	0.001***	0.10	0.001***	0.12
Subjective Health	3.18***	0.14	3.04***	0.14
ADL	-2.16***	-0.09	-1.08	-0.03
Life Satisfaction _{t-1}	0.31***	0.33	0.37***	0.40
Retirement Satisfaction ¹⁾				
Dissatisfied	-4.90**	-0.08	-6.89**	-0.11
Satisfied	0.92	0.02	5.54**	0.10
<i>F</i>	81.85***		60.80***	
<i>adjusted R</i> ²	0.30		0.39	

¹⁾reference: employed

* $p < .05$, ** $p < .01$, *** $p < .001$

여성의 회귀계수 차이가 의미 있는 차이임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즉, 남녀 모두 은퇴에 불만족하는 경우는 취업자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았고, 이러한 효과는 여성에게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 경우에만 은퇴에 만족하는 사람이 취업자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은퇴에 만족하는 남성이 취업한 남성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유의미한 증거는 본 연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각각의 회귀모형에서 투입된 변수들은 삶의 만족도의 변량을 남성의 경우 약 30%($R^2 = .30$), 여성의 경우 약 39%($R^2 = .39$) 설명하였다.

4. 결론 및 논의

과거에 은퇴는 노년기로 접어드는 것을 알리는 시차점으로 분류되었다. 주로 은퇴는 사회에서 물러나 이전보다 축소된 역할에 적응해야 하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논의되었다. 현재 중고령자는 노동의 가치를 높게 생각하는 시대적인 영향을 받아온 세대로, 은퇴 후의 축소된 사회적 역할을 걱정하는 경향이 많다. 또한, 아직까지 노년기 경제적인 노후 보장이 충분하지 않아, 은퇴 후 원하지 않아도 경제적인 이유로 재취업을 해야 하는 경우도 다수이다. 실제로 중고령자가 은퇴 후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여행(27.7%)이지만, 경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59.1%가 재취업을 희망하였고, 실제 27.2%가 재취업하였다[39]. 즉, 노동자로서 성실하게 삶을 꾸려오고 그 결과로 은퇴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이유로 은퇴 후의 삶을 온전히 즐기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나 최근에는 노동과 직업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여, 은퇴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기존의 통념과 달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즉, 은퇴라는 것을 힘들고 긴장되었던 직업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축복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삶에서 일이 가지는 비중이 과거보다 줄어들며,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생애발달 단계 중 은퇴 후의 삶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것에도 맞물린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행된 본 연구결과에 따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은퇴에 불만족할 경우 취업자보다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는 반면, 은퇴에 만족할 경우 오히려 취업자보다도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이는 중고령자의 삶의 만

족도가 은퇴 여부, 즉, 그들의 경제활동 참여여부뿐만 단 순하게 설명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는 은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맥락과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 이유 중 하나로 은퇴 만족도의 영향력을 밝혀내었다. 다시 말해, 개인이 은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은퇴와 관련된 국내연구들은 은퇴에 불만족하는 비율과 만족하는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16,17,23,27,28], 절반가량은 은퇴 전후의 삶의 만족도가 비슷하게 유지된다고 보고하였다[21,22]. 그러나 이 연구들은 주로 은퇴에 불만족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집중하여, 은퇴에 만족하는 은퇴자들에 대한 설명이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도 은퇴가 가지는 삶의 만족도의 긍정적 기여는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초점을 맞추지 않은 것으로도 추측할 수 있다.

한편, 동일하게 은퇴라는 생애사건을 경험한 은퇴자라 하더라도, 은퇴 만족도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상반된다는 것은 은퇴자 집단이 동일한 특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은퇴자와 취업자를 비교하여 은퇴가 가지는 영향에 대해 보고한 연구들 [3,5,8,12]의 일관되지 않은 결과에 대한 설명의 여지를 제공한다. 즉, 은퇴자라고 하더라도 연구대상자의 은퇴 불만족 혹은 만족 비율에 따라 상반되는 결과가 혼재되어 이로 인한 은퇴의 영향력이 발견되지 않았을 수 있다. 역할이론은 은퇴를 통해 역할 상실을 경험할 경우 취업 상태보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에서 은퇴의 부정적 측면을 설명한다. 그러나 이 이론은 스트레스나 부담이 높은 일에 종사했거나 은퇴 후 새로운 역할을 가졌을 경우 어려움을 덜 겪는다고 설명한다[5,32]. 열악한 직종에 종사하면서 낮은 대우를 받는 노동자의 경우 은퇴가 오히려 근로가 신체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가 이를 뒷받침한다 [25]. 이와 같은 은퇴의 양면적 특성을 모두 고려한다면, 노동자라는 정체성을 중요시하는 중고령자는 은퇴에 불만족하게 되어 은퇴 후 삶에 대한 만족도가 취업자보다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직업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었거나 가족 구성원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은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져 은퇴 후 취업자보다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일 수 있다.

둘째, 은퇴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불만족 은퇴자가 취업자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만족 은퇴자가 취업자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성은 이러한 관련성이 유의하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생애과정 관점에 따르면, 은퇴 전에 직업을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 얼마나 활동했는가에 따라 은퇴 후의 적응이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은퇴 이후 다양한 정체성 -부모 역할, 배우자 역할, 자원봉사자 역할 등- 을 가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32]. 남성 은퇴자는 생계부양자라는 의무감이 여성보다 더 크다는 점에서 직업생활 위주로 살아왔기 때문에 노동자라는 역할의 상실로 인한 어려움이 여성보다 높을 것이다[35]. 다시 말해, 은퇴 이후 개인이 참여할 곳을 그 전에 마련해놓는 것이 중요할 수 있고, 남성의 경우 이러한 기반이 부족하여 은퇴 후의 삶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반면, 여성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에서의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암묵적으로 요구받는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은 노동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과 더불어, 가족에서의 역할(아내, 엄마, 딸, 며느리 등)도 병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성역할에 따른 차이는 생애과정동안 지속되어 오며 은퇴 후의 적응에 큰 차이가 나타난다. 여성의 역할은 시대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M자형 경력단절현상과 워킹맘으로서 가지는 아이에 대한 죄책감, 일과 가정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수퍼우먼에 대한 환상 등으로 여전히 지속된다.

이들이 중노년기에 접어들어 은퇴할 경우, 비록 그 전에 일과 가정을 병행하느라 이중고를 겪었을지라도, 은퇴 후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이 보다 다양하고 명확하여 은퇴로 인한 상실감 등의 부정적 결과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 또한, 은퇴가 다중역할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남성과 달리 여성 은퇴자가 은퇴에 만족할 경우 취업자보다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남녀 모두 불만족 은퇴자는 취업자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고, 이 효과는 여성에게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성별에 따른 특성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 중노년기 세대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반

적인 규범은 아닌 세대로, 일자리의 질과 보상이 남성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여성은 그동안 일에 대한 불만족이 은퇴의 불만족으로 이어져서 삶의 만족도가 낮아졌을 수 있다. 이뿐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은퇴에 대한 지각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여성은 남성보다 객관적으로 취약한 사회경제적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 생활 만족에 대한 낮은 기대치로 인하여 남성보다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인다[40]. 이처럼 여성은 은퇴 전 일자리가 열악하거나 가족에서의 보조 부양자의 역할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을 것이다.

최근 들어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는데, 일이 삶의 우선순위가 보다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 중요해졌다. 과거의 규범은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높은 직책이나 많은 연봉을 받는 것이 최고라고 여겼으나, 최근에는 직장의 복지를 선호하는 것을 보면 뚜렷한 변화가 체감된다. 그러나 현재 은퇴를 한 세대는 일에 대한 전통적인 규범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은퇴 후에도 왕성하게 일하는 것이 일부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개인마다 은퇴 후의 삶의 구성은 다양할 수 있으며, 어떠한 하나의 유형만이 정답은 아닐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은퇴에 대한 개인의 인식 즉, 만족 혹은 불만족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은퇴자 집단의 이질성을 반영한 맞춤형 은퇴 계획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즉, 은퇴 후 새로운 직장을 찾고 싶은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추천하고, 미뉘둔 여가를 즐기고 싶은 경우 중노년기에 참여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중노년기 노동시장과 관련된 논의가 주로 취업시장에 남는 것이나 재취업을 돕는 방안이 중심이 되어 왔지만, 이것만큼이나 은퇴자가 은퇴 후 적응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노년기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은퇴 후 여가 프로그램과 가족과의 관계향상 등[15,28] 은퇴에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은퇴 후의 삶에 대한 다양한 롤모델을 개발하여 중노년층 맞춤형의 은퇴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강점이 있다. 첫째, 은퇴와 관련된 연구들이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상황에서 은퇴 만족도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 둘째, 본 연구는 전국단위로 표집된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사용하여 연구의 일반화가 가능하며, 종단자료를 통해 변수의 장기간 추적에 따른 지속성을 반영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속성은 매우 중요한데, 은퇴하였다고 응답했다고 하더라도 ‘완전 은퇴’가 아니라면, 이후 단기적인 재취업과 실직이 반복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종속변수의 사전 점수 및 1-2차년도 시변변수(가구소득 등) 평균점수를 사용하여 보다 정확한 통제변수를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은퇴가 생애 후반에 마주하는 부정적 사건으로만 인식되는 통념을 바꾸는데 기여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 기대하거나 계획하는 것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개인들에게만 허용되는 사치나 행복한 고민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은퇴 혹은 취업은 개인의 선택으로 이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일을 하는 모든 중고령자는 결국에는 은퇴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이고, 이 기간은 점점 더 길어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은퇴자에 대한 긍정적이고 다양한 롤모델을 만드는 데 바탕이 될 수 있다. 이는 은퇴 후의 삶에 대한 풍부한 논의를 가져올 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추후 연구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퇴자 연구에서 은퇴를 경험하는 시기는 중요한데, 본 연구는 연령대에 따른 각 집단의 사례수가 충분하지 않아, 생애시기를 구분하여 살펴보기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생애시기를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은퇴는 은퇴자 자신뿐만 아니라 은퇴를 함께 결정하고 은퇴 사건을 경험하는 배우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은퇴자와 배우자의 은퇴 만족도, 또 이로 인한 삶의 만족도는 다시 서로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개인 단위 연구에서 확장하여 부부 단위에서 은퇴의 영향력을 탐색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은퇴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는 신체적 건강, 경제적 수준,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요인들과 관련이 깊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를 기초로 하여 다양한 변수들을 풍부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1] M. A. Sung, S. E. Choi, "A Study on Korean Retirees' Life Satisfaction with a Focus on Gender Difference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 48, no. 9, pp. 13-25, 2010.
DOI: <https://doi.org/10.6115/khea.2010.48.9.013>
- [2] J. E. Kim, P. Moen, "Is Retirement Good or Bad for Subjective Well-Being?,"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vol. 10, no. 3, pp. 83-86, 2001.
DOI: <https://doi.org/10.1111/1467-8721.00121>
- [3] J. S. An, "Gender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Transitioning into Retirement on Mental Health among the Middle-Aged: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atisfaction in Family Relationship," Yonsei University, Korea, 2012.
- [4] E. Y. Choi, S. H. Joo,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Retirement and Life Satisfaction using Multivariate Multiple-regression Analysis," *Consumer Policy and Education Review*, vol. 14, no. 2, pp. 21-44, 2018.
DOI: <https://doi.org/10.15790/cope.2018.14.2.021>
- [5] J. E. Kim, P. Moen, "Retirement Transitions, Gender,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 Life-Course, Ecological Model,"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 Social Sciences*, vol. 57, no. 3, pp. 212-P222, 2002.
DOI: <https://doi.org/10.1093/geronb/57.3.p212>
- [6] V. Richardson, K. M. Kilty, "Adjustment to Retirement: Continuity vs. Discontinuity,"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 Human Development*, vol. 33, no. 2, pp. 151-169, 1991.
DOI: <https://doi.org/10.2190/6rpt-u8gn-vucv-p0tu>
- [7] I. Kang, "Study of Adjustment of Retired Elderly Men: Focusing on the Buffering Effects of Self-Complexity,"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 12, no. 3, pp. 259-283, 2007.
- [8] T. L. Gall, D. R. Evans, J. Howard, "The Retirement Adjustment Process: Changes in the Well-Being of Male Retirees across Time,"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 Social Sciences*, vol. 52, no. 3, pp. 110-117, 1997.
DOI: <https://doi.org/10.1093/geronb/52b.3.p110>
- [9] H. E. Quick, P. Moen, "Gender, Employment and Retirement Quality: A Life Course Approach to the Differential Experiences of Men and Wome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vol. 3, no. 1, pp. 44-64, 1998.
DOI: <https://doi.org/10.1037//1076-8998.3.1.44>
- [10] P. Warr, V. Butcher, I. Robertson, M. Callinan, "Older People's Wellbeing as a Function of Employment, Retirement,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nd Role Preference,"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vol. 95, no. 3, pp. 297-324, 2004.
DOI: <https://doi.org/10.1348/0007126041528095>
- [11] P. Drentea, "Retirement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Aging and Health*, vol. 14, no. 2, pp. 167-194, 2002.
DOI: <https://doi.org/10.1177/089826430201400201>
- [12] H. S. Yoon, M. J. Lee, "Gender, Residential Areas, Retirement Transition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 the Elderl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58, no. 4, pp. 197-217, 2006.
- [13] M. W. Riley, R. L. Kahn, A. Foner, “Age and Structural Lag: The Mismatch between People’s Lives and Opportunities in Work, Family, and Leisure,” Wiley Riley, USA, pp. 15-36, 1994.
- [14] R. C. Atchley, “Continuity and Adaptation in Aging: Creating Positive Experiences,” Johns Hopkins University, USA, 1999.
- [15] M. R. Kim, “A Comparative Study of Factors Affecting the Retirement Satisfaction of Semi Older and Older Adult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33, no. 3, pp. 617-636, 2013.
- [16] S. H. Seok, H. S. Kim, “A Study of Retirement Satisfaction of the Middle and Old Age,” *Journal of Pension Studies*, vol. 3, no. 1, pp. 113-133, 2013.
- [17] H. K. Shin, “Retirement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of Labor Market Retirees,” *Labor Review*, vol. 3, 2007.
- [18] S. W. Hong, M. H. Jeung, S. K. Yoo, “Factors that Influence Life Satisfaction of Retirees Living in the Community,”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vol. 56, pp. 139-162, 2016.
DOI: <https://doi.org/10.15300/jcw.2016.56.1.139>
- [19] J. E. Yoon, “Economic Activity Status and Mental Health among Middle and Older Adults: The Mediating Effects of Income Level and Satisfaction in Family Relationship,” Yonsei University, Korea, 2009.
- [20] K. Isaksson, G. Johansson, “Adaptation to Continued Work and Early Retirement Following Downsizing: Long Term Effects and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vol. 73, no. 2, pp. 241-256, 2000.
DOI: <https://doi.org/10.1348/096317900167001>
- [21] E. N. Kang, J. S. Choi, “Multiple Trajectories of Depressive Symptoms among Older Adult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34, no. 2, pp. 387-407, 2014.
- [22] J. K. Kim, H. J. Song, “The Factors Affecting Retirement Adjustment by Elapsed Time from Middle-Aged & Advanced-Aged Retiree’s Retirement,”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 48, no. 6, pp. 83-101, 2010.
DOI: <https://doi.org/10.6115/khea.2010.48.6.083>
- [23] E. Y. Baek, “Determinants of Retirement Satisfaction of Retirees,”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44, pp. 345-371, 2009.
- [24] M. Pinquart, I. Schindler, “Changes of Life Satisfaction in the Transition to Retirement: A Latent-Class Approach,” *Psychology and Aging*, vol. 22, no. 3, pp. 442-455, 2007.
DOI: <https://doi.org/10.1037/0882-7974.22.3.442>
- [25] L. Kalousova, C. M. de Leon, “Increase in Frailty of Older Workers and Retirees Predicted by Negative Psychosocial Working Conditions on the Job,” *Social Science & Medicine*, vol. 124, pp. 275-283, 2015.
DOI: <https://doi.org/10.1016/j.socscimed.2014.11.055>
- [26] D. C. Reitzes, E. J. Mutran, M. E. Fernandez, “Does Retirement Hurt Well-Being? Factors Influencing Self-Esteem and Depression among Retirees and Workers,” *The Gerontologist*, vol. 36, no. 5, pp. 649-656, 1996.
DOI: <https://doi.org/10.1093/geront/36.5.649>
- [27] J. Sung, J. Ahn, “A Study of Retirees’ Satisfaction on Retirement,” *Journal of Korean Economy Studies*, vol. 29, no. 2, pp. 175-212, 2011.
- [28] S. Chung, J. Moon, S. Kim,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Networks and Retirement Satisfaction of Old Retiree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30, no. 4, pp. 1145-1161, 2010.
- [29] J. C. Son, “Determinants of Retirement and Retirement Satisfaction in Korea,” *Quarterly Journal of Labor Policy*, vol. 10, no. 2, pp. 125-153, 2010.
- [30] K. Kim, S. J. Yang, “A Study on the Financial Status and Life Satisfaction of Retired Households,” *Financial Planning Review*, vol. 10, no. 1, pp. 27-60, 2017.
DOI: <https://doi.org/10.2139/ssrn.3085480>
- [31] D. A. Hershey, K. Henkens, “Impact of Different Types of Retirement Transitions on Perceived Satisfaction with Life,” *The Gerontologist*, vol. 54, no. 2, pp. 232 - 244, 2014.
DOI: <https://doi.org/10.1093/geront/gnt006>
- [32] M. Wang, K. Henkens, H. van Solinge, “Retirement Adjustment: A Review of Theoretical and Empirical Advancements,” *American Psychologist*, vol. 66, no. 3, pp. 204-213, 2011.
DOI: <https://doi.org/10.1037/a0022414>
- [33] G. Han, “Gender Difference in Retirement Experience - A Life Course Model,”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42, no. 3, pp. 86-118, 2008.
- [34] H. J. Kim, S. Y. Ko, H. W. Jung, J. S. Lee, J. Y. Lim, “A Study of Predictors of Retired Elderly Men’s Life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vol. 21, pp. 253-280, 2009.
- [35] G. Han, “Role Importance and Work / Family Conflict in Middle Aged Men,” *Family and Culture*, vol. 10, no. 2, pp. 93-114, 1998.
- [36] B. Kubicek, C. Korunka, J. M. Raymo, P. Hoonakker, “Psychological Well-Being in Retirement: The Effects of Personal and Gendered Contextual Resources,”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vol. 16, no. 2, pp. 230-246, 2011.
DOI: <https://doi.org/10.1037/a0022334>
- [37] M. Szinovacz, C. Washo. “Gender Differences in Exposure to Life Events and Adaptation to Retirement,” *Journal of Gerontology*, vol. 47, no. 4, pp. S191-S196, 1992.
DOI: <https://doi.org/10.1093/geronj/47.4.s191>
- [38] J. Petkoska, J. K. Earl, “Understanding the Influence of Demographic and Psychological Variables on Retirement Planning,” *Psychology and Aging*, vol. 24, no. 1, pp. 245-251, 2009.
DOI: <https://doi.org/10.1037/a0014096>
- [39] Shinhan Bank, “Another happy start, retirement,” Seoul, Korea, 2018.
- [40] K. N. Park, “Gender Differences in the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24, no. 3, pp. 13-29, 2004.

조 규 영(Kyuyoung Cho)

[정회원]



- 2009년 2월 :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학사)
- 2011년 2월 :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
- 2014년 8월 :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
- 2014년 9월 ~ 2017년 2월 :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시간강사
- 2017년 3월 ~ 현재 : 동아대학교 기초교양대학 조교수

<관심분야>

노년기 생산적 활동, 중노년기 부부관계, 중노년기 인지기능, 자녀양육기 부모역할

전 혜 정(Hey Jung Jun)

[정회원]



- 1993년 2월 :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
- 2001년 8월 : 위스콘신-메디슨대학교 인간발달 및 가족학과 (박사)
- 2002년 3월 ~ 2006년 2월 : 호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
- 2006년 3월 ~ 현재 :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관심분야>

생산적 노화, 노인정신건강, 노인인지발달, 노인가족관계

이 은 지(Eun Jee Lee)

[정회원]



- 2013년 2월 :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학사)
- 2015년 2월 :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
- 2016년 3월 ~ 현재 :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관심분야>

노년학, 가족학